

제1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1권 5편 삼위일체 1 · 한 본질 세 위격

제1권 13장 1~15절과 16절 첫 구절 (생명의말씀사 세계기독교고전 『기독교강요』 상, 145~168쪽)

?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서 어떻게 셋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성령님은 정말 하나님인가요?

흐름 한눈에

칼빈은 먼저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이시라는 기본 사실로 하나님을 사람 크기로 줄이는 상상들을 걷어 낸다(1절). 이어서 참 하나님을 우상과 가르는 결정적 표지가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위격'이나 '삼위일체'처럼 성경에 글자 그대로 나오지 않는 말을 써도 되는지, 꼭 써야 하는지를 따진다(2~6절). 그다음 성자가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구약 예언, 신약 증언,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적으로 증명한다(7~13절). 성령도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심을 보인다(14~15절). 세 분이 어떻게 구별되면서 하나인지는 16절부터 다루는데, 이 편 자료는 16절 첫 구절에서 끝나므로 다음 편으로 넘어간다.

절별 정리

삼위일체 교리의 해명을 위하여 사용된 용어들의 문제. 1-6

1. 하나님은 본질이 무한하시고 영적임

칼빈은 성경이 하나님의 '본질'(하나님이 무엇으로 계신 분인가)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다고 본다. 그래도 두 가지 속성만으로 사람의 헛된 상상을 막기에 충분하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니 우리 잣대로 잴 수 없고, 영이시니 몸이나 물질처럼 상상하면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원리로 칼빈은 세 가지 오류를 물리친다. 하나는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모두가 하나님”이라는 옛 사상가(세네카로 알려짐)의 말처럼 신성이 만물에 스며 있다는 생각이다. 또 하나는 선한 신과 악한 원리를 거의 대등하게 세워 하나님의 유일성과 무한성을 깎는 마니교다. 마지막은 성경의 '하나님의 눈·손·발' 표현을 근거로 몸 있는 하나님을 상상한 신인동형론자들인데, 칼빈은 그런 표현이 유모가 아기에게 말하듯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 낮추어 말씀하신 것이라고 답한다.

1.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 우리 잣대로 못 잴다
2. 하나님은 영이시다 → 몸처럼 상상 금지
3. '하늘에 계신다'는 마음을 끌어올리는 말
4. 마니교의 두 원리는 유일성을 무너뜨림
5. 성경의 신체 표현은 눈높이에 맞춘 말씀

(이 절에는 칼빈이 장절을 붙인 인용이 없음)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늘에 계신다는 성경 전반의 표현과, 하나님께 눈·손·발이 있다는 묘사를 근거로 삼음

2. 삼위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을 한 분 하나님으로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세 위격으로 알아보도록 자신을 보여 주신다. 이것이 참 하나님을 우상과 가르는 또 하나의 표지다.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머리에 맴돌 뿐 참된 지식은 얻지 못한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 겹으로 된 존재라거나, 한 본질이 셋으로 쪼개졌다고 상상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오류를 막아 줄 간단한 정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위격'이라는 말이 사람이 지어낸 말이라는 비난이 있어서 칼빈은 그것부터 검토한다. 히브리서 1:3은 성자를 성부의 '본체(휘포스타시스)의 형상'이라 부른다. 이 말을 '본질'로 읽어 성자가 성부의 본질을 도장처럼 찍어 낸 존재라고 보는 것은 어리석다. 본질은 하나이고 나뉘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성부는 성부로서 구별되어 계시면서 성자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성자와 구별되는 무언가가

안에 세 휘포스타시스가 계신다. 라틴 교부들은 이것을 '페르소나'(위격)로, 그리스 교부들은 '프로소파'(얼굴·인격)로 불렀다. 말은 조금 달라도 뜻은 같았다.

1. 한 분이시며 동시에 세 위격이시다
2. 이것이 참 하나님과 우상을 가르는 표지
3. 세 겹 존재도, 본질 분할도 아니다
4. 히브리서 1:3이 '휘포스타시스'를 씀
5. 라틴·그리스 교부, 말은 달라도 뜻은 같음

히브리서 1:3

성자는 성부 '본체의 형상'이자 '영광의 광채'다.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면서 구별됨을 보여 주며, '위격' 개념이 성경 안에 있다는 근거가 됨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 "삼위일체"나 "위" 등의 용어 사용의 정당성

반대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성경에 없는 말을 쓰면 다툼이 생기고, 말싸움 끝에 진리를 잃고 사랑이 깨진다. 그러니 생각도 말도 성경 단어 안에 가두자. 칼빈은 우선 이 걱정 of 일부에 동의한다. 호기심으로 지어내고, 미신처럼 붙들고, 다툼만 일으키고, 아무 유익이 없고, 성경의 단순함을 흐리는 말이라면 버려야 한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만큼 경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성경에 없다고 해서 '낮선 말'로 몰면, 성경 단어로만 되어 있지 않은 모든 성경 해석을 정죄하는 셈이 된다. 기준은 성경에서 찾되, 어려운 부분은 성경의 진리를 충실히 전하는 더 분명한 말로 조심스럽게 풀 수 있다. 교회가 이 말들을 쓸 수밖에 없게 된 이상, 이것을 트집 잡는 것은 진리를 밝혀 주는 빛을 거스르는 일이다.

1. 반대 논리: 성경 단어만 쓰자

3. 하지만 '글자가 없다'는 기준은 부당하다
4. 성경을 기준으로 더 분명하게 풀 수 있다
5. 하나님에 대한 말도 경건해야 한다

(이 절에는 장절 인용 없음)

성경이 생각과 말의 규범이라는 원칙 자체가 논증의 근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도 경건하게 해야 한다”

4. "삼위일체"나 "위" 등의 용어 사용의 필연성 ^

이 용어들은 진리를 공격하는 이들에 맞설 때 특히 쓸모가 있다. 이단은 애매한 표현을 숨을 곳으로 삼는다. 그래서 옛 교회는 빠져나갈 틈이 없는 정확한 말로 신앙을 선언해야 했다. 아리우스는 성경 증거가 너무 분명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척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가 다른 피조물처럼 지음받았고 시작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성부의 영원한 아들이며 성부와 '본질이 같다'(호모우시오스)고 선언했다. 그러자 아리우스파가 이 단어를 미워하면서 정체가 드러났다.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믿었다면 이 말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사벨리우스는 성부·성자·성령이 실제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지혜 같은 속성의 이름일 뿐이라고 했다.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는 듯하다가 말을 바꾸어, 결국 성부가 성자이고 성령이 성부라는 구별 없는 하나님을 주장했다. 그래서 교회는 한 하나님 안에, 곧 하나님의 하나 되심 안에 세 위격이 계신다고 분명히 선언했다.

1. 이단은 애매한 말 뒤에 숨는다
2. 아리우스: 그리스도는 지음받은 존재
3. '본질이 같다' 한 단어가 정통을 가름

(이 절에는 장절 인용 없음)

아리우스조차 부정할 수 없었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경 증거가 전제됨

5. 신학적 용어들의 필요성과 그 한계

칼빈은 이 용어들을 함부로 거부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용어 자체를 우상처럼 붙들지 않는다. 모두가 “성부·성자·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나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령은 성자가 아니며 각자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믿음에 동의한다면, 용어는 차라리 묻혀도 좋다고 말한다. 실제로 옛 교부들도 같은 경건을 가졌지만 말 쓰는 방식은 서로 달랐다. 라틴 교회는 '본질이 같다'를 번역하며 '실체'라는 말을 썼다. 그래서 히에로니무스(제롬)는 '하나님 안에 세 실체'라는 말을 신성모독으로 여겼지만, 힐라리우스는 그 표현을 백 번 넘게 썼다. 칼빈은 제롬이 '휘포스타시스'를 혼동했고 동방 감독들에게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말이 라틴어로는 낯설다고 하면서도 그리스 교회의 용법을 너그럽게 인정했다. 힐라리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는 둘 다 사람의 말이 이 신비를 담기에 모자라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새 말을 쓰는 것은 신비를 다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이 계신다는 사실에 침묵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변명했다. 칼빈의 교훈은 두 가지다. 교만이나 고집 때문이 아니라면 이 용어를 낯설어하는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지 말고, 왜 이 말을 쓰게 되었는지 차분히 이해시키자. 그러나 아리우스파에게는 “본질이 같다”고, 사벨리우스파에게는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라고 분명히 말해야 그들의 가면이 벗겨진다. 칼빈은 단어를 놓고 끈질기게 싸우는 이들이 대개 속에 독을 품고 있음을 오래 경험했다. 그래서 그들 기분을 맞춰 흐릿하게 말하느니 차라리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옳다고 본다.

1. 뜻에 동의하면 용어는 묻혀도 좋다
2. 교부들도 용어 사용이 서로 달랐다
3. 낯설어하는 사람은 너그럽게 설득하라
4. 숨는 이단에겐 분명한 말로 맞서라
5. 말은 신비를 다 담지 못한다(아우구스티누스)

“성경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으면서” 이단의 가면을 벗긴다는 원칙. 용어가 성경 내용의 요약임을 강조

6. 위격의 구별성

이제 칼빈은 말에서 내용으로 넘어간다. 그가 내리는 정의는 이렇다. 위격은 하나님의 본질 안에 있는 하나의 '실재'다. 다른 위격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나눌 수 없는 고유한 특성으로 구별된다. 요한복음 1:1이 근거다. 말씀이 그냥 하나님일 뿐 다른 구별이 없다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요한은 곧이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해서 본질이 하나임을 일깨운다. 그래서 실재는 본질과 떨어질 수 없지만 고유한 표지로 구별된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성부·성자·성령 모두에게 해당한다. 하지만 성부를 성자와 견주면 각자의 특성이 드러난다. 성부만의 특성은 성자에게 옮겨 가지 않는다. 칼빈은 테르툴리아누스의 표현도 받아들인다. 하나님 안에는 본질의 하나 됨을 해치지 않는 일종의 '배분' 또는 '경륜'이 있다는 것이다.

1. 위격 = 본질 안의 '실재'
2. 서로 관계하면서 고유 특성으로 구별
3. '함께 계셨다' → 구별, '곧 하나님' → 하나
4. '하나님'은 세 분 모두에게 쓰는 이름
5. 한 위격의 고유함은 다른 위격과 안 나눔

요한복음 1:1

'하나님과 함께'는 구별을, '곧 하나님'은 본질의 하나 됨을 보여 주는 정의의 핵심 근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자의 영원한 신성. 7-13

세 분이 어떻게 다른지 말하기 전에 칼빈은 먼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한다. 성경이 말하는 '말씀'은 공중에 퍼졌다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영원한 지혜이며, 모든 예언이 거기서 나왔다. 베드로는 옛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했다고 증언한다.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기 전이니, 말씀은 영원 전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어야 한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있으라” 하고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도 말씀은 창조의 중개자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그냥 '명령'이라고 피해 간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세상이 성자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성자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한다. 잠언 8장의 지혜와 요한복음 5:17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며, 가장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1:1-3이다. 결론적으로 말씀은 모든 계시의 근원이고, 변하지 않으며, 영원히 하나님과 같은 분, 곧 하나님 자신이다.

1. '말씀'은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다
2. 영원한 지혜, 모든 예언의 근원
3. 선지자들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함
4. 창조는 성부와 말씀의 공동 사역
5.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다

베드로전서 1:10-11

옛 선지자들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언했다 → 말씀은 성육신 전부터 계셨음

¹⁰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¹¹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토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베드로후서 1:21

(참조)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나왔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¹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²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³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⁴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⁵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⁶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

히브리서 1:2-3

'말씀=명령일 뿐'이라는 반론에 대한 답. 성자로 창조, 성자가 만물을 붙드시

²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³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잠언 8:22

지혜가 영원 전 성부에게서 나서 창조를 주관했다(칼빈의 해석)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요한복음 5:17

창조 때부터 성부와 함께 일해 오셨다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요한복음 1:1-3

말씀의 영원한 본질, 구별, 창조자 되심을 한 번에 보여 주는 가장 분명한 증언

¹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²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³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8. 말씀의 영원성



어떤 이들은 말씀의 신성을 대놓고 부인하지는 않는다. 대신 말씀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입을 여신 그때 비로소 생겼다고 하면서 은근히 영원성을 빼앗는다. 칼빈은 이것이 하나님 자신에게 변화가 생겼다고 상상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창조주'처럼 하나님의 바깥 활동에 붙은 이름은 그 활동 뒤에 붙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에게 새로운 무언가가 생겼다는 뜻의 이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야고보서 1:17은 하나님께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한다. 반대자들은 “모세가 그때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기록했으니 그 전엔 말씀이 없었다”고 추리한다. 칼빈은 어떤 것이 특정한 때 드러났다고 해서 그 전에 없었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고 답한다. 오히려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말씀은 이미 계셨고, 시작 자체가 없다. 요한복음 17:5와 요한복음 1:1이 이를 확인한다.

1. 반론: 말씀은 창조 때 생겼다
2. 그러면 하나님이 변했다는 말이 된다
3. '처음 드러남'은 '처음 생김'이 아니다
4. 창세 전 영화를 성부와 함께 가지셨다
5. 말씀은 시작이 없는 영원한 분

야고보서 1:17

하나님께는 변함이 없다 → 하나님 안에 '새로 생긴' 말씀은 있을 수 없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창세기 1:3

“빛이 있으라” —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기 전에 말씀이 이미 계셨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요한복음 17:5

창세 전에 성부와 함께 가지셨던 영화 → 시간의 한계가 없음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1

창조(1:3)를 말하기 전에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함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3

창조 이야기가 말씀의 존재 뒤에 나온다는 순서의 근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나신 바 되셨고, 영원 전부터 그와 함께 거하신 것이다.”

9. 구약성경에 나타난 성자의 신성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하시는 일은 구속을 다룰 때(2권)로 미룬다.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구약의 증거만 다룬다. 시편 45:6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니이다”라고 한다. 유대인들은 '엘로힘'(하나님)이 천사나 권세자에게도 쓰인다고 피해 간다. 칼빈은 피조물에게 영원한 보좌를 주는 구절은 성경에 없다고 답한다. 또 사람에게 이 이름을 쓸 때는 출애굽기 7:1의 “바로에게 하나님 같이”처럼 반드시 꾸밈말이 붙는다고 지적한다. 이사야 9:6은 메시아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부른다. 유대인들은 문장을 바꿔 읽어 '평강의 왕'만 메시아 칭호로 돌린다. 칼빈은 메시아를 분명하게 알리려는 본문에서 왜 성부의 칭호를 늘어놓겠느냐고 반문한다. 이 이름은 이사야 7:14의 '임마누엘'과

이름이라 가르쳤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남에게 주지 않으신다(이사야 42:8). 제단(출애굽기 17:15)과 성읍(에스겔 48:35)에도 이 이름이 붙었다는 반론이 있다. 칼빈은 그것이 하나님이 높이심과 임재하심을 기념하는 이름일 뿐이라고 답한다. 예레미야 33:16에서 예루살렘이 같은 이름을 얻는 것도 오히려 근거가 된다. 23장은 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33장은 그 의를 받은 교회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를 말하기 때문이다.

1. 영원한 보좌는 피조물에게 주어진 적 없다
2. 사람을 '하나님'이라 할 땐 꾸밈말이 붙음
3. 이사야 9:6 '전능하신 하나님'은 메시아
4. '여호와 우리의 공의'는 그리스도의 이름
5. 23장은 의의 원인, 33장은 그 결과

시편 45:6

영원한 보좌를 가진 '하나님' → 피조물일 수 없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출애굽기 7:1

모세를 '바로에게 하나님 같이' — 사람에게 쓸 땐 꾸밈말이 붙는다는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 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이사야 9:6

메시아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7:14

'임마누엘'과 같은 목적의 이름이라는 비교 근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레미야 23:5-6

다윗의 가지 = '여호와 우리의 공의'

⁵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⁶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사야 42:8

하나님은 영광을 남에게 주지 않으심 → 이 이름을 가진 분은 하나님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7:15

'여호와 닛시' 제단 — 반론에 대한 답(하나님이 높이심을 기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에스겔 48:35

'여호와삼마' 성읍 — 반론에 대한 답(하나님의 임재 증거)

그 사방의 합계는 만 팔천 척이라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삼마라 하리라

예레미야 33:16

예루살렘이 같은 이름을 얻음 → 의를 받은 교회가 영광 돌리는 결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구약에는 '여호와와 사자(천사)'가 나타나 스스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장면이 많다. 말은 임무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뿐이라는 반론에 칼빈은 이렇게 답한다. 종이라면 하나님께 갈 제물을 스스로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다. 그런데 사사기 13장의 사자는 음식은 사양하면서 여호와께 드릴 번제를 드리게 하고, 그 제사 가운데 불꽃으로 올라간다. 마노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겠다”고 했고, 사자는 자기 이름이 '기묘자'라고 답한다. 세르베투스는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고 천사가 대신 경배받았다고 주장했다. 칼빈은 정통 교부들의 해석을 따른다. 말씀이 육체를 입기 전에 이미 일종의 예비 단계로 중보자 일을 시작하셨고, 백성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사자'라 불리셨다는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은 그대로 지니셨다. 야곱이 씨름한 분도 호세아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고,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고 고백한다. 바울도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백성과 함께하셨다고 말한다. 스가랴 2장, 이사야 25:9, 말라기 3:1도 오실 분이 곧 여호와이심을 보여 준다. 특히 성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바쳐진 곳인데 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임하신다.

1. 사자가 하나님의 이름과 제사를 받는다
2. 마노아: “하나님을 보았다”
3. 성육신 전 말씀이 '사자'로 나타나심
4. 세르베투스: 천사가 대신 경배받았다 → 반박
5. 성전에 임하실 주 = 그리스도

사사기 6:11-22

(칼빈은 11·12·20·21·22절을 둠) 사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드온에게 나타남

¹¹ 여호와와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¹² 여호와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¹³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¹⁴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¹⁵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¹⁶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

사사기 7:5, 7:9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같은 맥락의 증거로 제시)

사사기 7:5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핏을 것 같이 혀로 물을 핏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사사기 7:9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사사기 13:16

사자가 음식을 사양하고 번제를 명함 — '종이라면 그러지 않는다'는 논증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사사기 13:20

제사 가운데 올라감 → 그가 여호와이심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²²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²³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사사기 13:18

“내 이름은 기묘자라” — 모든 의심을 없애는 사자의 대답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호세아 12:5

야곱과 씨름한 분 =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창세기 32:29-30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 지음받은 천사가 아님

²⁹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³⁰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고린도전서 10:4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백성과 함께하심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스가랴 2:3, 2:9

다른 천사를 보내는 천사 = 만군의 여호와

스가랴 2:9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이사야 25:9

구원하러 오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 그리스도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말라기 3:1

성전에 임하실 주 = 그리스도 → 늘 경배받으신 바로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11. 신약성경에 나타난 성자의 신성

신약에는 증거가 너무 많아 칼빈은 몇 가지만 고른다. 사도들은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칼빈이 고른 구절은 모두 그분의 영원한 신성을 보여 준다.

첫째, 구약에서 여호와 자신에 대해 한 예언이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다고
사도들은 말한다. '걸림돌이 되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무릎이 꿇을 분', '사로잡힌
자를 이끌고 오르신 분', '이사야가 본 영광'이 모두 그리스도께 적용된다.

히브리서는 시편에서 하나님께 드린 찬양(땅의 기초를 놓으심, 천사들의 경배)을
그리스도께 돌린다. 칼빈은 이것이 본문을 비튼 것이 아니라 그 시편이 노래한 일을
그리스도가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한다. 둘째,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직접 하나님이라
부른다.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 그 예다. 그런데 같은 바울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강조하므로, 그리스도를 '두 번째 급의 신'으로 볼 여지는 없다. 도마의

구약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이를 요약한다

2. 시편의 하나님 찬양을 그리스도께 돌림

3. '찬양받으실 하나님', '참 하나님'

4. 하나님은 한 분 → 제2급 신은 없다

5. 도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로마서 9:32-33 (이사야 8:14 인용)

걸림돌 되실 만군의 여호와 = 그리스도

로마서 14:10-11 (이사야 45:23 인용)

모든 무릎이 꿇을 하나님 = 그리스도

에베소서 4:8 (시편 68:18 인용)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승리의 오르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

요한복음 12:41 (참조: 이사야 6:1)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영광 = 성자의 영광

히브리서 1:10 (시편 102:25 인용)

땅의 기초를 놓으신 주 = 성자

히브리서 1:6 (시편 97:7 인용)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실 분 = 성자

시편 102:13, 시편 97:1

그 시편들이 노래한 일을 그리스도가 이루셨다 → 왜곡 아님

시편 102:13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시편 97:1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요한복음 1:1, 1:14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육신이 되신다

요한복음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로마서 9:5

그리스도 =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10

그리스도가 심판대에 앉으심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3:16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디모데전서 1:17

영광과 존귀는 오직 하나님께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 2:6-7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심

⁶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⁷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스도 =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 → '가짜 신'이라는 비방 차단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신명기 6:4

(참조)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고린도전서 8:5-6

많은 신이 있다 해도 우리에게만 한 하나님뿐

⁵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⁶ 그러나 우리에게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사도행전 20:28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20:28

도마의 고백 — 늘 경배하던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12.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의 사역에서 드러남

그분을 죽이려 했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삼았다는 이유였다. 섭리와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는 일은 창조주만 하신다. 또 그리스도는 피조물에게 결코 넘겨지지 않는 일도 하신다. 하나님은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지우는 자”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하시고 그 권세를 이적으로 증명하셨다. 칼빈은 그리스도가 남의 권한을 대신 쓴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실제로 가지셨다고 결론짓는다. 사람 마음속 생각을 꿰뚫어 보는 일도 하나님께만 속하는데, 그리스도는 그 능력도 가지셨다.

1. 유대인도 '하나님과 동등'으로 알아들음
2. 만물을 붙드는 일은 창조주의 일
3. 죄 용서는 하나님만의 권세
4. 그리스도는 그 권세를 실제로 지니심
5. 마음을 꿰뚫어 보심도 신성의 증거

요한복음 5:17-18

성부와 함께 일하신다는 말씀 →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동등'으로 이해함

¹⁷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¹⁸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히브리서 1:3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심 = 창조주의 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사야 43:25

허물을 지우는 분은 하나님 자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가 죄 사함의 권세를 말씀하고 이적으로 증명하심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마태복음 9:4

사람의 속생각을 아심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요한복음 2:25

(참조)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13.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의 이적에서 드러남

칼빈은 선지자와 사도들도 비슷한 이적을 행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준 것이고, 그리스도는 자기 능력을 드러내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때로 기도하며 성부께 영광을 돌리신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권위로 이적을 행하셨다. 또 사도들에게 이적을 행할 권한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이고,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다. 다음으로 칼빈은 구원·의·생명 논증을 펴나. 이것들은 하나님 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가 이것들을 지니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넣어 주신 것”이라는 반론에는 이렇게 답한다. 그리스도는 구원을 받은 분이 아니라 구원 자체이시고, 그냥 선한 분이 아니라 선과 의 자체이시다. 그래서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은 불경인데도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소망을 두라고 한다. 또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를 그리스도께 드리고(스데반), 서신마다 성부와 성자에게서 은혜를 빈다. 칼빈은 이런

깨우침 받고 지켜지고 의롭게, 거룩하게 되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거의 손으로 만지듯 알게 된다.

1. 사도는 선물을 나눔, 그리스도는 자기 능력
2. 이적 권한을 주신 분이 이적의 주인
3. 그리스도는 구원을 받은 분이 아니라 구원
4. 믿음과 기도가 그리스도께 향한다
5. 경험한 지식이 사색보다 확실하다

요한복음 11:41

그리스도도 때로 기도로 성부께 영광 돌리심(인정하는 부분)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마태복음 10:8

사도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심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가복음 3:15, 6:7

(참조) 같은 권능 위임

마가복음 3:15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6:7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사도행전 3:6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함 → 능력의 출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으라 하고

요한복음 5:36, 10:37, 14:11

그리스도가 자기 일을 근거로 믿으라 하심 → 신성의 증거

요한복음 5:36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10:37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요한복음 14:11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마태복음 19:17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 → 선 자체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요한복음 1:4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4:1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로마서 10:11 (이사야 28:16 인용)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로마서 15:12 (이사야 11:10 인용)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엘 2:32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와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와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잠언 18:10

여호와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

여호와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사도행전 7:59

스데반이 “주 예수여” 하고 기도함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사도행전 9:13

아나니아가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며 성도들을 '주의 성도'라 함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골로새서 2:9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그 안에 거하심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고린도전서 2:2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레미야 9:24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자랑함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로마서 1:7, 고린도전서 1:3, 고린도후서 1:2, 갈라디아서 1:3

성부와 성자에게서 같은 은혜를 뵈 → 성자도 복을 주시는 주체

로마서 1:7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1: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1:3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구원이시기 때문이다.”

성령의 신성도 성자와 같은 방식으로 증명한다. 창세기 1:2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는 성령이 지금 세상의 아름다움을 지키실 뿐 아니라, 세상이 꾸며지기 전 혼돈 상태에서도 일하셨음을 보여 준다. 이사야 48:16은 여호와께서 '그의 영'과 함께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말한다. 성령이 선지자를 보내는 주권을 함께 가지신다는 뜻이다. 그러나 칼빈은 가장 강한 확증이 일상의 경험이라고 한다. 만물을 붙들고, 자라게 하고, 살리는 일은 피조물이 하는 일이 아니다. 성령은 어디에도 갇히지 않으시므로 피조물이 아니다. 또 성령은 썩지 않을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데, 빌린 능력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하시며 장래의 영생까지 주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고, 지혜와 말할 능력을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무엇보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이 은사를 '자기 뜻대로' 나누신다고 말한다. 뜻과 선택이 있으므로 성령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실제로 계신 위격이다.

1. 창조 전 혼돈 속에서도 일하신 성령
2. 선지자를 보내는 주권을 함께 가지심
3. 만물을 살리는 일은 피조물의 일 아님
4. 자기 능력으로 중생과 영생을 주심
5. '자기 뜻대로' 나누심 → 인격적 위격

창세기 1:2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 → 창조와 보존에 참여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사야 48:16

여호와께서 '그의 영'과 함께 보내심 → 성령의 주권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아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고린도전서 2:10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심 → 피조물 아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2:10

성령이 지혜와 말하는 능력을 주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출애굽기 4:11

말할 능력을 주는 일은 여호와 자신의 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고린도전서 6:11

(참조) 성령으로 거룩하게, 의롭게 되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2:4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 성령이 모든 은사의 근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히브리서 2:4

(참조) 성령의 은사가 여러 모양으로 나뉨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11

성령이 '자기 뜻대로' 나누심 → 의지가 있는 위격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15. 성령의 신성에 대한 성경의 후속적인 증거들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바울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결론짓는다. 같은 뜻으로 '성령의 전'이라고도 한다.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를 인용한다. 성령을 위해 나무와 돌로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만 있어도 성령의 신성을 입증할 텐데, 우리 자신이 성령의 전이라니 이보다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다. 베드로는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한다.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한 것을 바울은 성령의 말씀이라고 한다. 이사야 63:10은 백성이 '그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고 한다. 성령 모독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성령의 신적 위엄을 선언한다. 한편 칼빈은 교부들이 성령의 창조 사역 증거로 쓴 시편 33:6은 근거가 약하다며 쓰지 않는다. 시편은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경우가 많고, '입의 기운'은 이사야 11:4에서처럼 '말씀'과 같은 뜻일 수 있기 때문이다. 칼빈은 경건한 사람이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증거만 골랐다고 말한다.

1. 성령이 계신 곳 = 하나님의 성전
2. 성령을 속임 = 하나님을 속임
3. 여호와의 말씀 = 성령의 말씀
4. 성령 모독은 용서받지 못함
5. 약한 증거는 교부 것이라도 쓰지 않음

¹⁶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¹⁷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6:19

같은 뜻으로 '성령의 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6:16

하나님의 성전 →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사도행전 5:3-4

성령을 속인 것 =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

³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사야 6:9, 사도행전 28:25-26

여호와와 말씀의 바울이 성령의 말씀으로 인용

이사야 6: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사도행전 28:25-26 ²⁵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26 일렸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베드로후서 1:21

(참조) 예언은 성령에게서 왔다 → 예언을 주시는 성령은 여호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사야 63:10

백성의 반역이 '그의 성령'을 근심하게 함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마태복음 12:31, 마가복음 3:29, 누가복음 12:10

성령 모독은 용서받지 못함 → 신적 위엄

마태복음 12:3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마가복음 3:29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12:10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시편 33:6

교부들이 쓴 증거. 칼빈은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해 채택하지 않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사야 11:4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삼위 하나님의 구별성과 일체성. 16-20

16. 한 분이신 하나님

이 편의 자료는 16절 첫 구절에서 끊인다. 남아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는 출발점뿐이다. 세 위격이 어떻게
구별되면서도 한 분이신지(16~20절)는 다음 편에서 원문 전체를 보고 정리한다.
여기서는 내용을 미리 짐작해 채우지 않는다.

1.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더 분명해진 계시

2. 본론은 다음 편에서 정리

(이 편 자료에는 인용 없음)

다음 편에서 정리

오해와 반론

용어

본질

하나님이 '무엇'으로 계신가를 가리키는 말로, 성부·성자·성령이 똑같이 함께 가진
하나의 신성이다.

위격(位格, 페르소나)

한 본질 안에서 서로 구별되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오늘날 말하는 '세
사람'처럼 따로 떨어진 개인이라는 뜻은 아니다.

히브리서 1:3에 나오는 그리스어로, 칼빈은 '위격' 또는 '실재'의 뜻으로 읽는다.

실재(subsistence)

본질과 떨어지지 않으면서 고유한 특성으로 구별되는 존재 방식으로, 칼빈이 '위격'을 정의할 때 쓴 말이다.

호모우시오스

'본질이 같다'는 그리스어로, 성자가 성부와 똑같이 하나님이심을 못 박은 단어다.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 성부·성자·성령 세 위격으로 계신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한 단어로 요약한 말이다.

비공유적 특성

한 위격에게만 있고 다른 위격과는 나누지 않는 고유함을 말한다(예: 성부만의 특성은 성자에게 옮겨 가지 않음).

경륜(배분)

테르툴리아누스의 말로, 본질의 하나 됨을 해치지 않는 하나님 안의 질서를 가리킨다.

신인동형론

하나님을 사람처럼 몸을 가진 분으로 상상하는 생각이다.

중생

성령이 사람을 썩지 않을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일이다.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이시므로 우리 상상 크기로 줄일 수 없다.

한 하나님은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으로 계신다. 위격은 유사하게 구별되는

- '위격', '삼위일체', '본질이 같다'는 성경에 무언가를 더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뜻을 지키고 이단의 숨을 곳을 막는 말이다.
- 성자는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이자 참 하나님이다. 구약 예언, 사도들의 고백, 죄 용서와 이적, 기도와 믿음의 대상 되심이 이를 보여 준다.
- 성령도 창조와 중생, 은사와 성전 되게 하심, 신적 위엄으로 볼 때 참 하나님이다.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칼빈 『기독교강요』 (생명의말씀사)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https://www.youtube.com/@빛다방)